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가 한국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지킬 것인가, 고칠 것인가

사람이 모이면 시끄럽다. 저마다 세계관, 가치관, 이해관계, 기질, 취향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딪히고 싸워서 굴복시키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화해하고 속인다. 정치의 영역에서 갈등과 충돌은 첨예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권력을 놓고 다투는 쟁투이고 그 이면을 따라가면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대개 보수라 하는 이들은 기존의 질서와 기득권을 존중하고 이를 지키려 한다. 반대로 진보라 불리는 이들은 지배질서와 기득권에 비판적이며 개혁을 추구한다.

지금-여기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값 상승으로 상징되는 부동산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힘든 대표적 사회문제이다. 일각에서는 시장 논리에 맡겨두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철저히 '자유주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정반대 편에서는 '토지 공개념'을 강력하게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정된 토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필연적이다. 게다가 모든 경제력과 교육문화 인프라, 의료 기반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집값 문제를 단순히 부동산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때 그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 방향을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문제 그 자체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게 문제를 객관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대 로마는 이천 년여 전에 존재했던 나라이다. 최근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

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고대 로마에서 시행했던 기본소득제-물론 현대사회의 기본소득제와 다른 점도 있다-를 연구하여 해결의 단초를 찾고자 하는 시도도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공화정 로마 시절 토지 문제로 갈등이 촉발되었을 때의 모습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인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일대일 대응은 경계해야 한다.

개혁의 배경

로마는 기원전 509년에 공화정을 채택한 이후 귀족계급과 평민층 사이의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기원전 367년의 '리키니우스 법'으로 모든 공직을 평민층에 개방하고, 기원전 287년 '호르텐시우스 법'을 제정하여 귀족과 평민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성공했다. 민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등 정치적 차원에서 형평성은 비교적 높았다. 그렇다고 사회적 갈등이 일소된 것은 아니었다. 카르타고라는 강력한 외적과 전쟁을 치르느라 내부 갈등은 볼 거지지 않았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뒤인 기원전 200년을 기점으로 로마에는 사회적으로 여러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로원이 폐쇄적으로 바뀌며 권력은 집중되기 시작했다. 원래 원로원은 왕의 자문기구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포에니 전쟁이라는 비상사태 극복과정에서 원로원의 권고가 국정에 직접 반영되기 시작하여 이내 고착화되었다. 어느새 원로원은 외교권, 인사권, 제정권, 사법권, 군사권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큰 권력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징집 병력의 부족과 그에 따른 군대의 질적 저하를 꼽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로마 군단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소규모 자영농층인 토지 소유 시민 계급에서 병력을 충원했다. 고대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스스로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로마 병사가 정예강군이었던 이유는 계급적 자부심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외 전쟁이 지속되면서 자격 기준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기원전 133년경에는 거의 한 세기를 두고 계속된 전쟁으로 사상자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규모 자영농 계층은 몰락하여 군단에 징집할 자원이 격감하였다. 그 결과 로마 군대의 질적 수준은 저하되었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개혁

그라쿠스 형제는 형인 티베리우스 셴프로니우스 그라쿠스(Tiberius Sempronius Gracchus, BC163~BC133)와 그의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

스(Gaius Gracchus, BC154~BC121)를 지칭한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기원전 133년에 호민관으로 재직하며 농지법 개혁을 시도하였고, 아홉 살 아래인 동생 가이우스는 이로부터 10년 후인 기원전 123년과 122년의 호민관으로 곡물법을 통한 개혁을 실시하여 포에니 전쟁 이후에 나타난 로마 공화정을 개혁하려는 정책을 수행하다 원로원 정적과 반대파의 정치적 폭력으로 희생된 소장과 정치인이었다.

이들이 시도한 일련의 개혁 작업이 순수한 애국심의 발로였는지 아니면 평민의 지지를 이용하여 정치적 인기몰이를 시도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공익적 정의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라쿠스 형제에 대한 평가도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정당한 평가가 어렵다.

서양에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표현이 있다. 그라쿠스 형제야말로 기원전 2세기 후반의 로마에서 그 누구보다 이 표현이 들어맞는 사람들이다. 집정관을 두 차례 지내고 재무관까지 역임하고 두 번씩이나 개선식을 올렸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를 아버지로, 한니발의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스키피오의 딸 코르넬리아를 어머니로 둔 명문 가문에서 둘은 출생했다. 특히 어머니인 코르넬리아는 새로운 유형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살롱을 열어 여러 사람들과 토론을 즐겨 하였는데, 여기에서 논의된 것들은 당시로써는 진보적인 것이었다. 어머니의 진보적인 면은 형제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농지법, 곡물법 등 경제 관련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원전 2세기 전후의 경제상의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먼저, 자영농민이 점차 몰락했다. 원래 로마의 농업은 제4계급과 제5계급에 속하는 자산가인 소규모 자작농들이 주도하였다. 하지만, 포에니 전쟁 등 강력한 해외 팽창의 결과로 카르타고, 마케도니아, 코린트 등에서 유입된 대규모의 자본, 토지, 노예, 시장 등은 노예에 의한 라티퐁디아 경영으로 바뀌었다. 한 마디로 대기업의 발흥과 유사하다. 경쟁에서 뒤진 소규모 자영농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또한 기원전 218년에 제정된 ‘클라우디우스 법’은 원로원 의원의 상행위 목적의 선박 소유를 금지하여 원로원 귀족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은 지속적인 수입을 얻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해외에서 장기복무를 하고 있던 자영농 계층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면서 자신의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 유사한 맥락에서 곡물 가격에 문제가 생겼다.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주도하던 시기에 곡가는 폭등했다. 기원전 140년부터 기원전 127년까지 13년 동안 로마의 곡가는 무려 12배까지 오른다. 그 원인은 로마의 곡물 수급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카르타고와의 전쟁 전에 로마는 에트루

리아로부터 곡물을 공급받았으나 이곳 지역의 습지화로 인하여, 곡물 수급지는 시칠리아와 사르디니아, 카르타고를 정복하고 세운 속주 아프리카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그러던 중 기원전 135년에 일어난 시칠리아의 노예 반란은 로마의 곡물 수급에 큰 타격을 주었다.

기원전 134년 여름,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호민관에 출마하여 당선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되었다. 그는 당선 후 개혁법안인 ‘농지개혁 법안’을 제출했다. 그라쿠스 가문이 속해 있는 ‘셈프로니우스 일족’의 이름을 따서 ‘셈프로니우스 농지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법은 사유지는 빼고 국유지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그라쿠스가 제출한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임차할 수 있는 국유지의 상한선을 500유겔룸(125헥타르)으로 정한다. 이 밖에 아들의 명의로 아들 한 명당 250유겔룸까지의 임차를 인정한다. 다만 일가족 전체의 임차지가 1천 유겔룸을 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목축용 가축 수도 600마리를 상한선으로 한다.
2. 국유지 임차권은 상속할 수는 있지만 남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3. 1천 유겔룸 이상의 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는 그것을 국가에 반환하고 국가는 반환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런 다음 국가는 상설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희망하는 농민에게 임차 농지를 재분배한다. 또한, 부정 임차된 국유지를 환수하여 무산자에게 재분배하는 ‘3인 위원회’를 설치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부유층이 그 친척이나 해방노예의 명의로 땅을 마구잡이식으로 점유해 나가는 상태를 바로 잡으려는 티베리우스의 의도가 확실히 나타난다. 달리 말해, 자영농에서 무산자로 전락한 이들에게 농지를 지급해 자영농으로 복귀시킴으로써, 로마 시민층의 기반을 건전하게 하고, 실업자를 구제하여 사회 불안을 해소하려는 목적의 법안이다. 시민계급이 회복된다면 로마 시민권자로 구성되는 로마 군단도 다시 원상태를 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라쿠스는 일종의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어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력까지 함께 강화하고자 하였다.

원로원은 그라쿠스의 개혁에 덮어놓고 반대할 수는 없었다. 법의 내용은 상식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자신감을 얻은 그라쿠스가 반환 토지 및 무산자 계급에 제공할 보조금을 국고에서 지불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는데, 원로원 내의 보수파 의원들은 자신들의 권리 침해를 구실로 국고에 대한 권리는 원래부터 원로원의

것이었음을 주장하며 자신들이 부정 임차한 농지의 반환에도 반대하였다. 그들은 또 다른 호민관인 옥타비우스를 설득하여 이 법의 통과를 저지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그라쿠스는 옥타비우스를 자리에서 해임시키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개혁 법안을 민회에서 통과시켰다. 일단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한 티베리우스는 페르가몬 왕국의 아탈로스 3세가 유증한 재산을 영농자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이 시도는 원로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평민만 참석할 수 있는 평민 집회에서 가결되었고, 평민집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대로 법제화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호르텐시우스 법’에 따라 정식 법안이 되었다. 이를 원로원 과두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원로원은 인식하였고, 원로원은 그라쿠스의 적이 되었다.

그라쿠스는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호민관에 재선되어 개혁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병역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과 사법에 관한 법안 개정을 통하여 평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재임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호민관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의 연임이 금지되어 있었고, 사법에 관한 법안 개정이 기존 원로원의 권한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라쿠스는 재선에 실패하고 바로 살해당하였다.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개혁

티베리우스가 살해된 기원전 133년 이후의 몇 년 동안은 로마가 평화와 풍요를 누린 시기이기도 했다. 히스파니아 원주민 반란과 시칠리아에서 노예 반란도 완전히 진압되었다. 노예 반란 진압에 성공한 이후 로마 정부는 노예 처우 개선을 규정한 법률을 성립시켰다. 노예 반란이 가혹한 대우에 분노한 노예들이 주인을 죽인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속주가 평온해져 필요한 군단 수도 줄어들었다. 로마에 평화가 돌아온 덕분에 로마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가이우스는 로마의 빈부 격차 심화를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기원전 124년 여름,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호민관에 출마하여 최하위로 당선되었다. 그는 12월 10일에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법안을 잇달



가이우스 그라쿠스

아 제출했다. 그는 형 티베리우스의 유작인 ‘농지법’을 다시 들고 나왔다. 10년 동안 유명무실해져 있던 ‘농지법’을 민회에서 다시 가결하여 효력을 살리고자 했다. 농지개혁의 실행기관인 ‘3인 위원회’도 다시 설치했다. 그는 자영농 살리기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까지 생각했는데, ‘곡물법’이 그것이다. 국가가 일정량의 밀을 사들여, 그것을 시가보다 싼 값으로 빈민들에게 공급하는 법안이다.

로마 사회의 빈부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병역에 종사할 수 있는 재산 하한선이 1500아세로 내려갔다. 그래서 실업자는 아니지만 빈부격차 확대에 희생되어 병역 의무를 짊어지게 된 가난한 시민계층이 생겨났는데, 이들을 그 부담에서 해방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그는 새로운 ‘병역법’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아무리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라도 17세 미만의 남자, 즉 미성년자를 징집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에 필요한 장비와 무기 및 식량 등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물자를 지급하긴 해도 그 경비는 급료에서 공제하고 있었다.

실업자 대책이 자작농 장려만으로는 불충하다고 생각한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공공사업법’을 제출했다. 가도나 다리, 상하수도, 항만 공사 같은 공공사업을 진흥함으로써 실업자 구제를 꾀한 것이다. 그라쿠스는 공공사업 진흥의 목적을 실업자 구제에만 두지는 않았다. 사회간접자본이 탄탄해지면 경제가 활성화되리라는 신념도 있었다. 그라쿠스는 당시 부상하고 있던 ‘기사계급’의 활용에도 주목했다. ‘기사계급’으로 불린 이들은 ‘화폐 엘리트’였다. 그는 이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배심원 개혁법’을 제정했다. 그라쿠스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원로원의 의원들이 배심원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 배심원단을 ‘기사계급’만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가이우스의 개혁안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속주법’ 개정을 통해 속주에서의 징세권을 비롯한 경제 활동이 ‘기사계급’에 좀 더 유리해지도록 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에도 신경을 썼다. 민회와 평민집회 모두에서 제1계급부터 무산자 계급까지 전원이 동시에 투표를 시작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했다. 그는 ‘시민권 개혁법안’도 제출했다. ‘라틴 시민’에게는 ‘로마 시민권’ 취득을 인정하고, ‘이탈리아인’에게는 ‘라틴 시민권’ 취득을 인정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 확대는 도시국가 로마의 붕괴이고, ‘로마연합’의 해체이며, 원로원 주도의 공화정 체제에 대한 도전임을 알고 강한 위기감을 느낀 원로원 의원들은 온건파와 강경파를 가리지 않고 그라쿠스와 맞서기 위해 하나로 뭉쳤다. 하지만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인기는 높았다. ‘시민권 개혁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은 가결된 상황이었다. 가이우스는 호민관의 연임을 인정하는 법률도 일찌감

치 통과시켜 놓았기 때문에, 기원전 123년 여름에 실시된 선거에서도 무난하게 재선되었다. 호민관으로 두 번의 연속적인 임기를 채운 후, 가이우스는 3번째 출마하여 맹렬한 선거운동을 전개했으나 재선에 실패하였다. 그의 정적들은 그가 만든 법 중의 일부를 무효화하려 했다.

기원전 121년, 카르타고의 옛터에 건설할 식민시의 운명이 걸린 투표가 실시되던 날, 그의 추종자 중의 한 사람이 집정관의 전령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살해 음모 누명을 쓰게 되리라고 우려한 가이우스와 그의 친구들은 투항하기를 거부하고 어떤 폭력과도 대결하지 않으려고 다이애나 신전에 피신하여 자결하려고 했다. 한편, 원로원은 군인들을 포함한 폭력집단을 동원하여 가이우스 그라쿠스와 그의 동료 풀비우스를 비롯한 지지자 3000명을 무참하게 살해하여 테베레 강에 수장하였고, 그들의 재산도 처분하여 공동금고에 충당했다. 이 사건은 원로원 측이 불리하게 될 때는 군대라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례가 없었던 무력 폭력의 한 예를 남겼다. 공화정의 끝이 빠르게 다가왔다.

그라쿠스 형제 이후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실패했으나 이후에도 개혁 시도는 꾸준히 있었다. 마침내 민중은 개혁을 군사지도자들에게 기대하게 되고, 그 결과 로마 공화정이 일인 지배로 전환되는 길이 열린다. 그라쿠스 형제가 분명히 지적했던 것은 로마 정체의 이원적 성격이다.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고위 공직자와 원로원, 호민관과 민회, 이 두 집단은 관습이나 법에 의해 여러 가지 일에 똑같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라쿠스가 세력을 잡기 전까지는 최고의 관리들은 집정관과 법무관이었고, 최고의 주요 심의기구인 원로원이었다. 민회가 하는 일은 관리를 선출하는 것이었고 그 외의 별다른 일은 하지 않고 있었다. 그라쿠스 이후, 호민관의 자리는 원로원을 거치지 않고 입법기구로서 민회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그라쿠스 이전에는 간헐적인 충돌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결함이 발견된다 해도 큰 결함이 아니면 덮어주고 협력했다. 그러나 그라쿠스 이후부터 공화정을 잘 작동하도록 하는 데 꼭 필요했던 상호 관용 풍조가 없어졌다. 포룸에서의 폭력은 통상적인 것이 되었다. 결국 로마는 내란으로 이어졌고 공화정은 종말을 고하였다.

21세기 초반의 대한민국

젊은이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한다. 고령화는 점차 심화되어 금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론은 연일 떠든다. 이제 저출산·고

령화는 식상하기까지 하다. 집값은 폭등하고 있다. 정부가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 해결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실업 문제 역시 심각해 보인다. 대기업이 망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대기업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자영업자들이 망한다고 한다. 이 와중에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성차별 문제로 시끄럽다.

이천 년 전 로마에서 벌어졌던 원로원 귀족과 평민 계층의 갈등은 기득권층과 소외계층 간의 갈등이었다. 문제는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욕구를 절제하지 않고 무한정 채우려고 하면서 그라쿠스 형제로 대표되는 개혁 세력과 부딪힌 것이다. 아마도 원로원 귀족들은 조금씩 양보하다가가는 모두 빼앗긴다고 나름은 절박하게 인식한 것 같다. 그래서 싹을 밟는 차원에서 그라쿠스 형제를 살해한 것은 아닐까. 개혁세력 역시 군사적으로는 순진했던 것 같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행보를 보면 원로원 귀족들과 타협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했다고 본다. 요컨대 당시 로마의 기득권층과 소외계층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다. 공화정은 유지될 수 없었고 제정에 의해서 로마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한국 사회도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여러 문제가 가진 개별적인 상황보다 더 문제인 것은 큰 틀에서, 그동안 공고해지고 강력해진 기득권층이 자신의 기득권을 결코 양보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는 점이다. 이래서는 문제 해결은 더더지고 다양한 갈등만 불거질 수밖에 없다. 기득권층은 비교적 동질적인 데 반해 비기득권층의 스펙트럼은 대단히 넓다. 기득권층이 이기기 쉬운 구조이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의 한 대목을 인용한다. 한국 사회에서 갈등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본다.

“이탈리아를 배회하는 야수조차도 은거할 동굴과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거늘, 이탈리아를 위해서 싸우고, 이탈리아를 위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은 공기와 햇빛을 누릴 뿐, 집도 안식처도 없이 처자를 이끌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중략)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집마다 내려오는 제단을 가진 자가 없으며,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조상이 고이 잠자는 묘소를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귀와 사치를 위하여 싸우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계의 정복자라 불린다 하여도 그들은 한 줌의 흙덩이조차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중에서